

# 장성에 쿠팡 물류센터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군, '장성 서브허브' 신설 투자협약 4000평 규모 복합물류터미널 운영 450명 직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업난 해결·농산물 판로 확보

장성군에 쿠팡 물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쿠팡이 150억원을 투입해 물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와 '장성 서브허브'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서브허브(sub-hub)'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과정 중간에 거치는 물류시설이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늘어난 호남권 주문량에 대응

하기 위해 장성에 '서브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성 서브허브'가 건립되는 곳은 서삼면 용흥리 장성복합물류터미널이다. 쿠팡이 올해 2월 개소를 목표로 150억원을 투자해 바닥면적 합산 1만 3200여㎡(4000평) 규모 시설을 구축한다. 직원 450명도 직고용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CLS 측은 △인력 채용 시장성군민 최우선 고용 △장성지역 업체에 공사·용역 의뢰, 물품 구매 노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성군은 '서브허브'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홍용준 CLS 대표는 "장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매입하고 전국단위 판로를 제공해 지역민 수익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김한중(왼쪽) 장성군수가 지난 1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와 장성 서브허브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주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이 청년 취업난 해결과 농산물 판로 확보

는 중요한 지역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모 화순군, 2월 4일까지

화순군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월4일까지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화순군에 소재한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부문은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최저임금의 20~5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연간 최대 1억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일자리 창출 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화순군 지역경제과로 신청해야 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광주본부·광주검사국 24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와 광주검사국(국장 문홍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협광주본부는 설 명절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나로마트 등 소관 판매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수용품 등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며, 광주검사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성 확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점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확인 △위생적 취급 준수 점검 등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유통사업장에서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곡성군이 산불 진화대원 선발을 위해 신청자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동약체육공원에서 체력 검정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70명 규모의 산불 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군 제공

## 곡성군, 봄철 산불조심 기간 조기 운영

곡성군이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로 정하고 112일간 운영한다. 곧 다가올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하고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전년 대비 5배나 많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 운영 방침을 정한 것이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70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군 기계화진화대 20명·읍면예방진화대

50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감시와 산불방지 홍보·계도, 각종 소각 행위 단속 등 예방 활동부터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뒷불 감시 등 산불 대응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진화대원 선발을 위해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자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동약체육공원에서 체력 검정을 실시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체력 검정에서 신청자들은 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등짐펌프를 메고 2km를 걸어서 시간을 측정했다.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물론, 체력 및 지구력을 측정해 산불 진화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산불은 소중한 산림과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한순간에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선발된 대원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곡성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나주시, 산림·녹지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 15개 분야 138명

나주시는 2025년도 산림·녹지 분야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138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산림과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채용된 인력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 15개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녹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녹지 환경 정비와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나주시 거주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22일부터 23일까지 나주시민회관(나주시 남산길 23)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면접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녹지와 산림 환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곡성국악전수관 국악수강생 모집 곡성군, 장구·농악·판소리 등

곡성군은 오는 25일까지 6일간 '2025년 상반기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곡성군은 국악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에게 국악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다.

'2025년 상반기 국악교실'은 오는 2월 3일부터 7월26일까지 총 25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운영 장소는 곡성군 옥곡면 사또골문화센터 3층에 있는 곡성국악전수관이다.

국악교실은 총 7개 강좌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좌 내용은 △장구 △농악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민요 △해금이며 각 강좌는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수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전화 신청이 있으며 국악전수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국악전수관(061-360-8456)로 문의할 수 있다.

국악전수관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시작된 국악교실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매년 활기차게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주민들이 국악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백양사·백암산 주차장 무료 운영 장성군, 4곳·978면 확보

장성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천년고찰 백양사와 백암산을 올해도 주차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국립공원 관할 주차장인 백암·가인·남창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10월 추가협약을 체결한 사설 백양제1주차장이 더해져 확보된 무료 주차 공간은 총 4곳, 978면에 이른다. 협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장성군은 지난해 주차장 무료화를 시행한 결과 백양사와 백암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역시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4월18~21일),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4월30일~5월2일) 개최에 맞물려 추진되는 '장성 방문의 해' 운영과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백양사·백암산 인근 주차장 전면 무료화 시행이 북부권 관광 수요 확대와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